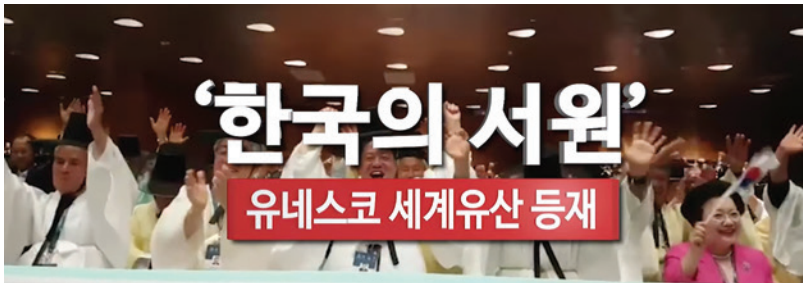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몇 가지 질문

글. 한 철 CBS 디지털콘텐츠국 플랫폼개발부



출처 : 문화재청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43차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 문화(Culture)란 사회구성원에 의해 공유(共有)되는 지식, 신념, 행위 등의 총체이고, 이런 활동의 소산물로 유형 가치를 지닌 것을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 한다. 유산(Heritage)이란 한세대가 다음 세대로 계승(繼承) 또는 전승(傳承)해주는 모든 것을 말한다.

즉,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은 문화재에 혼과 정신이 담겨 미래로 전승 및 계승되는 유산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뭐가 좋은 거야?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은 국제협력 및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자연적, 인위적 피해에 대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가의 기술협력이 가능하며 장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세계유산 모든 분야의 연구와 과학적 조사 방법 등에 대한 훈련 및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교육을 위한 인쇄물 발간, 번역, 정보 자료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유산 보호에 대한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유산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하며, 고용 기회 및 수입 증대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은 뭐지?

1954년 이집트는 나일강 남쪽에 댐공사를 하게

된다. 목적은 수력발전에 의한 전기생산을 위함이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한 홍수로 인한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 강물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아부심벨에서 필레까지 280km의 누비아 문화유산이 수몰 위기에 처하게 된다. 더군다나 흙으로 만들어진 유적들은 수몰되면 그냥 사라지는 위기였다.

이에 아부심벨에서 필레 지역 유산의 해체·이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세계 50개국의 원조로 1964년에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1968년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3천여 명의 기술자, 과학자 등 국제 구조팀이 아부심벨 신전의 조각과 장식 부분을 2천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원래의 위치에서 뒤쪽으로 200m를 이동하였고, 위쪽으로 70m 높은 곳으로 완전하게 해체 및 복구를 하게 된다. 해체된 신전의 돌 한 개의 평균 무게는 20t에 달했고, 총 5년의 기간과 4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누비아 유적 공사 후 유산의 보호가 더는 해당 국가만의 몫이 아닌 인류 공동의 책임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변화가 되었다. 이런 인식의 변화 속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맺게 되고, 이 결과로 탄생한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누비아 유적은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게 된다.



출처 : Wikimedia Commons



출처 : Map 2018



아부심벨 신전을 나누어 이동하는 작업 / 출처 : Wikimedia, tumblr.com



아부심벨 신전의 원래 위치 / 출처 : encyclopedie.bsditions



현재의 아부심벨 신전 / 출처 : traveltoegypt.net

세계유산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유산 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을 말하며, 기념물(Monuments), 건축물군(Group of Buildings), 유적지(Sites)와 같은 부동산 유산이다. 유네스코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기준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있다.

- 첫 번째는 **진정성** 기준에 충족하는가?
- 두 번째는 **완전성** 기준에 충족하는가?
- 세 번째는 **보호 및 관리** 기준에 충족하는가?
- 네 번째는 10가지 **세부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가?

이러한 4가지 기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1) 진정성(Authenticity) 기준에 충족하는가?

‘진정성(Authenticity) = 오리지널, 진실, 진짜’ 즉, 창덕궁은 만들어진 때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수 있지만 후에 복원된 경복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수 없는 기준이다.

2) 완전성(Integrity) 기준에 충족하는가?

완전성(Integrity)은 분할되지 않은 상태, 파손되지 않은 상태인 지에 대한 기준이다. 즉, 조선 시대 마을은 기와집(양반), 초가집(하인), 우물 등이 완전하게 남아있어야 하며, 일부만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다.

3) 보호 및 관리 기준에 충족하는가?

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또한 유산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기준이 된다.

4) 10가지 세부 기준에 충족하는가?

1~6 기준 : 문화유산 기준
7~10 기준 : 자연유산 기준

- 기준 1. 걸작인가? (예 : 피라미드)
- 기준 2. 인류의 중요한 가치의 교류 역할을 했는가?
(예 : 실크로드)
- 기준 3. 문명의 특출한 증거인가? (예 : 고인돌)
- 기준 4. 특정 유형을 가졌는가? (예 : 창덕궁)

- 기준 5.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가? (예 : 계단식 논)
- 기준 6. 무형유산과 연계된 유산인가?
(예 : 해인사 장경판전)
- 기준 7. 최상의 자연현상
(예 : 제주 화산섬과 동굴)
- 기준 8. 지구 역사를 지질학적으로 입증하는가?
(예 : 하롱베이)
- 기준 9. 생태계와 생물들의 진화를 보여주는가?
(예 : 옐로스톤 국립공원)
- 기준 10. 멸종 위기에 처한 곳인가?
(예 : 쓰촨 자이언트 판다 보호구역)

이러한 4가지 기준을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살펴보자.

- 1단계. 잠정목록 등록
- 2단계. 본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초안 제출 > 1년 후 > 최종 신청서 제출
- 3단계. 자문기구평가 및 현지 실사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패널 회의
- 4단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유네스코(UNESCO)의 정체는 뭐야?

유네스코(UNESCO)는 각국의 교육, 과학, 문화의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5년에 만든 유엔교육/과학/문화 기구이다. 유네스코는 5개의 사업분과 위원회로 구성된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네스코 로고, 우측에는 종류별 상징 이미지가 붙게 된다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탄생 시기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의해 1972년 탄생 (1978년 엠블럼 채택)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으로 탄생	1995년 기록유산 보호 일반지침으로 탄생
상징 이미지			
이미지 설명	• 사각형 : 문화유산 (인간의 창조물 상징) • 원형 : 자연유산 (자연상징)	• 형태가 없는 무형을 추상적으로 표현 • 삼각형, 사각형, 원이 끊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의미	• 저작권을 뜻하는 두루마리 형태의 엠블럼
국내 유산	• 13개의 문화유산과 1개의 자연유산 등재 • 종묘, 창덕궁, 남한산성 등	• 종묘제례악, 씨름 등	•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 1분과 : 사업 일반 및 사업지원 분야
(유네스코 참여사업 포함)
- 2분과 : 교육 분야
- 3분과 :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
- 4분과 : 문화 분야
(세계유산 보존 및 보호, 기록유산등록,
무형유산 보호, 문화재반환 운동 등)
- 5분과 : 커뮤니케이션 분야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이 있다.(상단 표 참조)

마무리하며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까지 9년이 걸렸다. 우리의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올해 등재된 한국의 서원 외에도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등재될 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다.

다음 목표는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이다. 한양도성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이유는 진정성과 보호 관리의 적정성은 좋다는 평을 받았지만 나머지 기준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시 2022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양도성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유구한 역사의 나라 한국을 보기 위해 온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의 인파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진다. 🇰🇷